

대림 제 4 주일

기도서	220면 (A해)
제1독서 : 이 사	7, 10-14
제2독서 : 로 마	1, 1-7
복음 : 마 태	1, 18-24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마태오 1, 23).

□ 1986년 성탄메시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교구장 박 정 일 주교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1986년을 아쉬움과 더불어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평화의 명절인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사회 위에 풍성히 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1986년은 우리 한국 교회가 거구적으로 지낸 “성체와 가정의 해”였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특히 가정적 축일인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성체와 가정의 해를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들은 얼마만큼 성체를 중심으로 살아 왔습니까? 또 우리들은 가정의 평화와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은 얼마만큼 행복한 가정으로 진보하였는지 반성해 봐야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스럽고 평화로운 성가정이 우리 앞에 모범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가정을 모범 삼아 행복한 가정을 꾸며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겠습니다.

저는 가정의 평화와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정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나라와 이 사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몸담고 살아야 하는 보금자리이며,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회를 결코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가 평화로울 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사회가 정의로울 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인간답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나날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적할 필요도 없이 이 나라에는 아직 너무 많은 불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걸어 온 길을 돌이켜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암울한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어떤 신문은 “민주주의가 후퇴한 1986년”이라고 보도했고, 또 어떤 법조인은 “인권이 많이 위축된 한 해”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여년 동안 독재에 시달려 살면서 인권유린이나 비민주적 사례에 대하여 거의 무감각하게 된 우리들임에도 실로 놀랄만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인권유린의 극치를 이루는 파렴치한 고문행위의 빈발, 양심수의 엄청난 증가, 1천 명이 넘는 학생들의 일시적

대량구속, 천문학적 숫자의 최루탄 발사, 교회에서 존경 받는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의 전격 구속 입건, 특히 국민의 신망을 저버리는 국회의 모습들..., 하나 하나 열거하기에 마음 아프고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 나라를 위해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경사스러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어두운 이야기들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들이 고쳐나가야 할 일들이기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깊어가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숨기고 허황된 미래의 꿈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 나라는 조상들이 살아왔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길이 번영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우리들의 조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라 이 사회의 모습에 무관심할 수 없고 또 무관심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는 사회 안에 존재하면서 사회와 더불어 살아야 하고 사회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기도뿐 아니라 각자 자기가 처한 장소와 사회적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현세사물의 질서, 다시 말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이 복음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교회법 225조). 따라서 오늘과 같은 한국의 사회 현실 안에서 우리 신자들의 책임은 더욱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년 대림절에 읽는 이사야 예언서의 ‘메시아와 그 왕국’에 대한 말씀을 감명깊게 묵상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돌아나는 새싹인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고 흠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 주리라. 그의 말은 뭉치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의 입김은 무도한 자를 죽이리라”(이사 11, 4).

우리 사회 안에서 가난한 자, 농어민들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인간적인 권리를 올바르게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폭력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이 정의와 평화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는 날이 빨리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면에 계속>

<1면에서 계속>

이사야 예언자가 묘사한 메시아 왕국의 평화스런 모습은 곧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건설하고자 하신 평화의 나라입니다. 과연 이사야 예언자의 표현대로(이사 11,6~8) 늑대와 새끼양, 표범과 수염소가 서로 덩굴며 함께 놀듯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서로 존경하며 허심탄회하게 국사를 논의하고, 또 갓난 아기가 독사나 살모사와 장난하듯이 우리의 학생들과 경찰이 서로 긴장과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서로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면서 한 형제로서 화목하는 날이 빨리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가져다 주시려 이 세상에 오셨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라면 우리 자신부터 그분의 평화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마태 5,9)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우리 사회는 평화스럽게 될 것입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탄생하신 예수님의 구유 앞에서 다시 한번 평화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도록 기원하십시오.

기쁜 성탄절과 뜻깊은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의 연말연시를 지내면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986년 성탄절에

성 (축) 탄

주님이 오심을 함께 축하하며
교우 여러분과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순정이 산책



□ 성탄절에 쓰는 편지

대자여, 만나 보고 싶구나

보고 싶은 대자(代子)에게.

나는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대자의 어머니를 만났었네. 그 어머니는 대학생인 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는 이야기를 해주었네. 그런데 그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나눈 한 마디는, 대자와 대부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네. 문득 자네들의 얼굴이 떠올랐네. 하지만 어떤 얼굴은 생각조차 나지 않아 나를 당황하게 했네.

평소에 나는 가끔 대자들을 생각한다네.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대부로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네. 그러나 그 대답은 "세례식의 증언에 불과했구나" 하는 결론으로,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네. 참으로 나는 무심한 대부일세. 이제 나는 그 어머니와의 만남 때문에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되었네. 만나 보자, 좌우간 만나고 보는 것이다. 대자들이여, 한 번 만나세.

이번 성탄절에도 그러하겠지만, 대축일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네. 세례식 때 기억이 나는가? 갓난아기 때가 아니라면 세례예절은 그 당사자에게 큰 감명을 주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무디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시의 신선한 충격은 고향 마을의 밤짓는 연기 같아서 쉽게 사라지지 않지. 나이 40에 접어들어서 세례를 받은 내 대자 한 사람은 예절중에 계속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네. 그 눈물이 그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었지만, 그 눈물은 나에게도 새로운 세례의 감격을 주었네. 그래서 나 역시 함께 울었네. 이 글을 읽거들랑 영세식에 꼭 참여해 보게. 틀림없이 자네 가슴에도 무언가가 와 닿을 것일세. 그래서 신앙의 활력을 충전 좀 하게나.

나는 이번 성탄절이 판공성사를 통해서 많은 신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네. 일을 조금 거둔다는 것이 결국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지. 하느님께 주시라고 간청만 하면서도 그분께 해드릴 것이 없다고 걱정하는 자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근로소녀의 분당살림 걱정, 조용히 주님과 대화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네. 참으로 감사로운 날이었지. 그런데 참, 판공성사는 잘 준비해서 보았겠지? 성탄절은 확실히 은혜로운 시기라 아니할 수 없네. 성탄이야말로 인류 구원 약속의 시작이기 때문이네.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소란해도 잠시 마음을 가다듬게. 마음을 비우고 오늘도 이 세상에 오시는 아기 예수처럼 또 새롭게 태어나세.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네.

참, 새해 1월 6일 오후 3시경에 내가 가톨릭센터 다방으로 나가자. 그때 사진 한 장 가지고 오게. 그때까지 건강하기를 비네. —부족한 대부 한상갑(바오로)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자궁암 검사. 질 성형수술

여 의 사 황 수 경
산부인과전문의

이 승 렬(엘리아)

☎ 전주 2-7272

관동로 서울신탁은행건너편 골목

전북의료보험조합지정병원
김종환치과 의원

신라당 ○

필달로--

○ 주택은행

김종환치과 의원

--오거리

○ 조흥은행

1대화병진

원장 김 종 환 (안드레아)

전주시 경원동 3가 50-4

T. 6-7744

주택은행 옆 신라당 건너편

교 구 소 식

- ☆ **축! 확산전주교회 사제관 축성식**: 22일 오전 11시, 축하연-12시
- ☆ **주교님 성탄일정**: 성탄 전야미사-중앙전주교회(밤 12시)
 낮미사-순정이 천주교회(오전 10시)
- 1. **예비신학생 피정**: 22일 오후 2시~23일 오후 3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대상-교3·대·일반 성소자, 회비-3천원, 준비물-세면도구·필기도구
- 2.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총 충만 대피정**
 ① 일시-1987년 1월 2일(금) 9시40분~1월 3일(토) 오후 5시, ② 장소-전 동성당
 ③ 참석대상-모든 교우들(예비교우 환영),
 ④ 초청강사-박정일 주교님·김정원 신부님·정혜레나 회장님·김발다살 회장님·
 최보리나 자매님, ⑤ 참가비-1천원(점심 각자 해결)
 ⑥ 준비물-목주·신구약성서·성가집·필기도구
- 3. **전화번호 변경안내**: 집안 전주교회-사제관 2-2541 유치원 2-2293
 월명동 전주교회-수녀원 42-0629
- **축! 영명 성 스테파노(26일)**: 김치삼·김환철·나춘성 신부님
 성 요한사도(27일): 서석구·김병환·김기수·전종복 신부님

(축) 은 경 (축)

김 환 철(스테파노) 신부

때: 1986년 12월 29일(월), 미사-11시, 축하식-12시, 축하연-12시30분
 곳: 미사·축하식-전주 중앙성당, 축하연-가톨릭센터 3층
 ※ 교우들의 많은 기도와 참석바랍니다

- **사무장님께 알림**: 순정이 28일 소식은 22일까지, 1월 4일 소식은 27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미국 아틀란타 한인교회(주임: 서석구 신부)에서 교구 성소후원을 위한 헌금 4,000\$을 보내주셨습니다

10만인 성지순례

1코스: 전주 순정이 → 치명자산(오후 1시~4시)

일	요일	담당 신부	일	요일	담당 신부
21	일	배영근 신부	28	일	김환철 신부

※ 가정기도 독서: 시편 90, 1~6 마태오 1, 18~25

✦ 잠깐!

☆ **성탄준비-고백성사로 회개부터,**

판공이 한창이다. 고백소 문전이 많은 지경이다. 사제들은 피곤에 허덕일 때다. 본당마다 일정표를 발표하고 제시간에 고백성사를 보도록 거듭 당부하다 못해 애원한다. 또 냉담자 주소를 알아내 성사를 보도록 권유하는 편지를 띄우는 본당이 있는가 하면 대담이 시작되기 전 냉담자들 일일이 찾아가 판공성사를 보도록 권유하는 본당도 있다.

이렇게 모든 신자들이 제 때에 고백성사를 보고 주님의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낙오자가 생기고 지각생이 생긴다. 12월 24일 자정미사 때 고백소 앞에 늘어난 지각생들을 해마다 보게 되니 말이다. 그래서 사제들의 입에서는 한숨이 나온다. 그러나 오랫동안 냉담해 있던 신자가 나타나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성사를 볼 때는 「대어(大魚)를 낚았다」면서 사제들도 피곤을 잊고 기뻐한다. 성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아버지 마음이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성에 젖은 고백성사를 보는 사람들을 대하다가 이런 탕자의 회심울 볼 때 어찌 목자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는가?

탕자들이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성탄준비다.

요십이 (698) 김병오



자선의 만남

일일 차집

때: 1987. 1. 2(금)
 A.M. 9시~P.M. 9시
 곳: 가톨릭센터 휴게실
 주최: 전주교구청 여직원
 난민탈 모임
 후원: 교구청 직원친목회

민병석(김대건 안드레아)

사진 전시회

1986. 12. 23~27
 전북예술회관 전시실
 1층 1전시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총 충만 대피정

1. 일시: 1987. 1. 2(금) 9시40분~1. 3(토) 17시
2. 장소: 전 동 성 당
3. 참석대상: 모든 교우들(예비교우 환영)
4. 초청강사: 박정일 주교님, 김정원 신부님, 정혜레나 회장님, 김발다살 회장님, 최보리나 자매님
5. 준비물: 목주, 신구약 성서, 성가집, 필기도구
6. 참가비: 1,000원 7. 참고사항: 점심 각자 준비
8. 주관: 전주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 1. 2(금) 19:30시 행복한 가정운동에 관한 최신 영화 상영함

베소라성서 강의

12 제자 선임 목적

(마르코 3:13~15)

일시: 1986. 12. 26
 오전 10시, 오후 7시30분
 장소: 가톨릭센터 3층

“구름이나
 소나기가 없이는
 결코 무지개가
 서지 않는다.”

- J. H. 빈센트

명동피부과의원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울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1. 축! 예수성탄: 이브행사-24일 저녁 7시
성탄 전야미사-24일 저녁 11시, 본일미사-25일 10시30분...
2. 성탄 판공성사 안내: 직장인 및 중고학생-오늘 오후 2시부터...
3. 교무금을 완납하여 기쁨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합시다
4. 각 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아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단체장께서는 속히 제출하세요.

- 1. 성탄전야 행사안내: 오후 8시~11시, 초·중·고생의 연극발표회 및 가족합창 경연대회, 청년회 복권추첨(90명)-지방청년회 ※ 11시30분-자정미사
2. 대림절 특별강론: 오늘 공식미사 중, 서광서 신부님
3. 성사 아직 못보신분: 21일 하루 손님신부님 성사
4. 제대회·청년회: 오늘 공식미사 후
5. 50주년 헌금: 안정만·서병철-2만원, 한동산·최상우·이준희-1만5천원, 여귀일-3만원, 유아모·구영순·유정옥-1만원, 이경서-5천원, 최원중-4천원, 유상-2천원, 계-156,000원, 누계-439,000
6. 교무금 미수 완납: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6,705원 교무금: 40,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마을리공소 판공성사: 오늘 오후 3시
3. 축! 영세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당-24일 오후 3시, 평화동-24일 오전 10시
4. 성탄미사: 24일(평화동-밤 10시, 본당-밤 12시)
25일(평화동-오전 9시, 본당-오전 10시30분)
5. 주일학교 성탄행사: 24일(본당-오후 7시~9시, 평화동-오후 7시~9시)
6. 금주전례
본 당: 해설-고정수, 독서-①유용산 ②강기호
봉헌-제2반장 가정
평화동: 해설-박병환, 독서-①강수중 ②김화영
봉헌-제3반장 가정
차주전례
본 당: 해설-김은경, 독서-①김한기 ②장원주
봉헌-제4반장 가정
평화동: 해설-박병환, 독서-①김화영 ②강수중
봉헌-제6반장 가정
□ 지난주 봉헌금: 본당-275,390, 평화동-126,840원
계-402,230원 자선연말 특별헌금: 72,145원
교무금: 2,006,6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1. 본당신부님 영명축일(사도요한): 27일
축하식-28일 공식미사 후(전신자 참여)
2. 판공성사: 23일 오전 9시30분~12시30분. 오후 2시~5시30분. 저녁미사 후
3. 대림절 회생 보속 성미 및 헌금(불우이웃돕기)
23일까지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탄미사: 자정미사, 25일 오전 10시30분. 저녁 7시
5. 성탄행사 안내: 24일 오후 6시30분~9시-복자의 밤(초·중·고생), 9시~11시-반대향 성가경연대회
6. 일선장병 위문대: 23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7. 성우회 정기총회: 성탄 자정미사 후
8. 사목회: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9. 재속형제회(삼회): 다음주일 오후 2시
10. 성당의자 방식 기증: 익명
11. 50주년 기념행사 및 본당 공사헌금: 5만원-강상자·문순금, 4만원-박영희, 3만원-유복현, 2만원-신금식, 1만5천원-이옥련, 1만원-김순희·김영택·김분이·이성복·강순복, 5천원-은순례·이성근·이귀남·이승희·이정순, 계-280,000원, 누계-33,599,000원
12. 축! 영세: 20일 영세하신 형제자매들 축하합니다
13. 축! 결혼: 28일 오후 1시
신당-김병두(아름), 신부-이학희(세노비아)
14. 금주청소: 월-다위의 탐 황금공전pr, 토-셋벨pr
15. 금주전례: 해설-정운주, 독서-①정동민 ②이갑진
봉헌-박상기씨 부부
성탄자시미사: 해설-유덕열, 독서-①김성원
②양규철, 봉헌-이상인씨 부부
성탄공식미사: 해설-최희숙, 독서-①강만춘
②최창기, 봉헌-정동민씨 부부
※ 해설·독서·봉헌하시는 분 정장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309,010원 교무금: 785,4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오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레지아 사무실 83-5085번

- 1. 영세자: 오늘 공식미사 후, 영세자 환영식(소강당)
2. 레지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3. 울뜨레아 모임: 22일 오후 7시30분
4. 성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오후 2시
5. 베소라성서 교육: 희망자는 사무실에 신청바람 무료
6. 주일학교 잔치: 23일 7시30분 소강당에서
주일학교 무도회-24일 4시 소강당
7. 성탄 자정미사: 24일 11시(구유예결 시작) 봉헌있음
25일 미사(8시30, 10시, 3시, 4시30, 7시-5대)
8. 예비자교리 안내: 일요일(성인반)-1월 2주부터 시작(학생반)-1월 2주부터 시작
수요일(직장인)-2월 1주부터 시작
9. 감사: 엠프·스피커·마이크-이금옥(50만원)·유태안(50만원), 구유펬트-김업배(25만원)
10. 자정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안득수 ②이종두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기정희, 독서-①백한수 ②이주영
8시 30분: 해설-최윤정, 독서-①김동기 ②손희부
공식미사: 해설-윤귀자, 독서-①신일균 ②이종두
□ 지난주 봉헌금: 914,320원 자선비: 325,820원
교무금: 814,0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 1. 성탄전 고백성사: 오늘 공식미사 후-오후 3시까지
22일 저녁 7시~9시, ※ 공동보속-히브리서 전체(신약 420쪽) 또는 복자기도 15단
2. 영세식: 호자 19기, ①24일 오후 6시
②예비자 면담-오늘 공식미사 후(사제관)
3. 성탄전례: ①전야전례-24일 밤 11시
②25일 미사-오전 10시30분(다른 시간 미사없음)
4. 오늘의 모임: 성모회, 울뜨레아
차주모임: 유아세례-10시, 교무회
□ 지난주 봉헌금: 581,950원 교무금: 1,195,000원

☆ 축! 성탄: 우리 마음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시다